

# 전남도, 중동발 경제 대응 총력... 통합 준비 속도

## 실국 정책회의 개최... 실질적 지원책 등 마련 주문 민생경제 TF 가동·예비비 활용 등 신속 지원 당부

중동 경제 불안이 지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전남도가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거론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 가장 첫 번째가 중동 상황 대응”이라며 “TF에서 논의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될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민생경제

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현재 정부 비상경제대응체계에 맞춰 중동 상황 비상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 경제 악화가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 지역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와 관련해서는 일정 관리와 행정서비스 연속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며 “7월1일 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통합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끊김없이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매주 전남·광주 정책협의회를 열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중동상황 비상대책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어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결정해 후속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1차 목표는 5월 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마무리하는 것이고, 6월에는 후속 작업을 테스트하고 시물레

이션해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시 모든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황 권한대행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큰 국제행사”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 진입로 등 교통대책, 위기 대비 배수

문제까지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장마 시작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관광플랫폼, 검색·숙박·체험 통합결제 ‘편리’

### 오늘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전남·광주 외 거주자 대상 숙박비 최대 5만5000원 할인도

전남도는 디자인과 예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1일 오픈하고, 이와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리뉴얼은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여행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인 화면이다. 직관적 화면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여 관광객이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도 간편 방식을

도입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구글 로그인 방식도 채택했다. 앱 구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앱 로딩이나 페이지 전환 속도를 크게 단축시켜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지도 최적화, 리뷰 개선, 검색 고도화, 추천코스 개선, 숙박·체험 상품 통합 결제 시스템 간소화 등으로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여행 일정을 준비하도록 최적화했다. 올해는 전남 여행의 문

턱을 낮추기 위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의 주소지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숙박 결제 금액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2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5만원 이상은 4만원, 2만원 이상은 1만원의 추가 할인액을 올려부터 1만5000원으로 상향, 서포터즈 회원은 1박당 최대 5만5000원 파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남관광플랫폼’은 4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거나 업데이트해 이용할 수 있다.

백정렬 기자 hoibu@gwangnam.co.kr

## 광주시, 창업기업 성장 거점 구축 ‘속도’

###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개관 임박... 15일까지 입점 모집

광주시가 제조 기반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북구 본촌산단에 조성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INNO+STA-G)’의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총사업비 428억원이 투입된 지상 7층, 연면적 1만4416㎡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지난 2월 준공됐다. 기업 입주 공간 84개실을 비롯해 업무지원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인프라로 평가된다.

센터 명칭은 ‘제조 혁신(Innovation)을 더하다’는 의미와 ‘스타트업 광주(Startup Gwangju)’의 약자를 결합한 것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도약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광주시의 정책 의지가 담겼다.

입주 대상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통산업 등 본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 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지역 실질적인 지명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이 정치개혁의 마지막 선이며, 기득권 안주 대신 시민의 시선에서 정치 구조 혁신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이선호, 시전동 관광거점 전환 제안

### “방문서 체류로”...관광 ‘체류형 전환’ 필요성 제기

이선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사진)은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전동을 여수 관광의 체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응원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람은 오는데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짧은 체류는 지역 상권과 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응원은 ‘방문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관광 전략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해법으로 낮에는 정원, 밤에는 빛, 일상에는 공원이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이순신공원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순신공원을 단순 산책공원이 아닌 싱가포르 ‘가든 스카이 더 베이’와 같은 랜드마크형 정원문화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사계절 볼거리와 체험, 야간 경관을 갖춘 정원 콘텐츠가 체류시간을 늘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장도·예울마루·선소 구간에 대해서는 “해변 데크길과 경관조명을 연계해 하나의 관광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야간 동선은 단순 산책로가 아닌 안전·보행 편의·경관 연출·포토스팟까지 포함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무투표 당선 55%...왜곡된 구조 혁신을”

### 조국혁신당 광주 출마자들, 정치개혁 조속 추진 촉구

조국혁신당 광주지역 출마자들이 여당의 비협조로 정치개혁을 위한 제정당 간 담화가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광주지역 예비후보들은 3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와 야5당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해왔으나 민주당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들은 “국회 정개특위 역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중대선거구제에는 선을 긋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광주의 지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율이 전국 평균의 4배인 55%에



달하는 등 정당이 시민 선택권 위에 군림하는 왜곡된 구조임에도 국회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거대 양당 눈치를 보지 말고 실질적인 지명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이 정치개혁의 마지막 선이며, 기득권 안주 대신 시민의 시선에서 정치 구조 혁신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